

정읍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착착'

19억원 투입 12곳 중 6곳 완료 회전교차로 설치·도로 구조 변경

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 개선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2개 사업 중 6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6개소 역시 빠르게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12개소에서 대대적인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대상지는 ▲서초교 오거리 ▲이평면 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신태인을 고산마을 입구 선형 개량 ▲태인면 공사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고부면 주산지점 선형개량 ▲탁천면 새터지점 선형개량 ▲탁천면 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내장상동 금봉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구룡동(시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감곡면 회전교차로 보강



정읍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등학교 오거리 회전교차로.

▲제일고사거리 개선 ▲도매시장 오거리 개선 등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개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로 정비와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정읍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역발전 기여 '정읍 시민의 장' 선정

문화체육·애향봉사·효행선행장 3개 부문

정읍시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헌신적 봉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2024년 시민의 장' 수상자를 발표했다.

정읍시는 지난 10일 시민의장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직을 면밀히 평가한 후 ▲문화체육장 이정희 씨 ▲애향봉사장에는 안정남 씨 ▲효행선행장 김다복 씨 등 3명을 '2024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이정희(60·여)씨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이수공예가로 40년 넘게 전통 자수공예에 매진하며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공로가 인정됐다.

애향봉사장 안정남(80·엘디마트 대표)씨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 봉사과 나눔활동을 이어나 인물로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등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효행선행장 김다복(79·여)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105세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효행을 실천해 왔다.

'2024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26일 '제30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희 씨 안정남 씨 김다복 씨

이학수 정읍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이번 수상이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정읍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모집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프랜차이즈 제외

남원시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남원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메뉴판(이용료) 사진을 준비해 18일 오후 6시까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격, 위생, 지역공헌도 등 현지 심사를 통해 최

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여부는 이달 중 안 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물품지원, 상수도 요금(30%) 지원, 시설개선 사업지원(간판, 샷시 교체 등),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요천 여뀌꽃 향 '춘향 디퓨저' 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꽃말

남원시관광협회 산하 남원관광지 리플러스(RE-PLUS) 사업추진단은 지역 새 기념품으로 '춘향 디퓨저'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춘향 디퓨저'는 남원을 가로지르는 요천의 여뀌꽃 향을 담아 관광객들에게 남원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선보이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남원의 상징인 '춘향(春香)'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봄의 향기'라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춘향 디퓨저 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테스트 끝에 남원의 은은한 자연 이미지와 부합한 여뀌향이 선정됐다. 또 디퓨저의 디자인도 새롭게 기획해 지리산에 자생하는 소나무의 맛을 살려 섬유리드 스틱이 아닌 우드리드 스틱으로 제작됐다. 그네를 타는 향이의 모습을 표현해 냈다. 디퓨저를 놓는 우드받침대는 명함꽃이로 제작해 책상 위에서 사용되는 디퓨저의 활용도를 높였다.

춘향 디퓨저는 여뀌꽃의 꽃말이 '나를 기억해 주



남원시 남원관광지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이 새롭게 개발한 남원관광 기념품 '춘향 디퓨저'. <남원시 제공>

세요'인 만큼 남원에서의 따뜻하게 기억하길 바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춘향 디퓨저는 남원의 미디어아트시설로 개관 예정인 '달빛정원' 내 기념품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읍 월곡리에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협약·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농촌활력 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촌생활 서비스센터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5월 농촌협약(농림축산식품부-고창군)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108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창읍 월곡리 우체국 부근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촌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다 드림누리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기관단체와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인 '다 드림누리터'를 통해 고창군 전역에 ▲보육 ▲돌봄 ▲식품 사막화 해소 ▲문



성현섭(왼쪽) 농촌협력과장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화·복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수요응답형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소득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친환경 쌀 '수광1' 생산단지 확대

탈립성 개선·흰잎마름병 저항성 강화...공공비축미 수매품 선정도

고창군이 친환경 수광쌀 개량품종 '수광1'의 생산단지 확대에 나선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한 수광 품종인 '고창 황토배기' 친환경 쌀은 고창에서 2017년부터 집중재배되고 있는 쌀 품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에도 선정돼 있다.

군은 기존 수광 품종의 단점인 탈립성 개선과 흰

잎마름병(K3a) 저항성이 추가된 수광1 품종에 대해 고창지역 적응시험을 마쳤으며 이에 따른 생산단지 확대를 계획했다.

행정구역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130여개 계약농가와 250ha의 면적에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